등골 브레이커, 고등학생들의 명품 패딩 선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김장현

디자인 팩토리

e-mail:jamie8122@naver.com

Spine Breaker,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High School Students' Preference for Luxury Padding

Jang-Hyeon Kim

Design Factory

요 약

본 연구는 등골브레이커라 명명되는 고등학생들의 명품 패딩 선호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어떠한 배경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 및 범위는 기사문에 나타난 등골브레이커의 사례를 탐색하고, 등골브레이커의 경험이 있는 20대 52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의 명품 패딩 선호에 대한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한 후,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등골브레이커의 현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의 패딩은 가격과 색상에 의해 고등학교 내부의 계급이나 권력을 표상화하는 상징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등골브레이커라고 명명되는 고가의 패딩이 고등학교 내의 계급이나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은 체감하고 있었으며, 이는 교복을 통한 심리적 규제에 대한 반발감 및 또래 소외현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방이나 동조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어지며, 학업 외의 경제적 활동의 참여 및 부모님의 경제적 의존 또는 타인의 의복을 빼앗는 일탈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고등학생들의 명품 패딩 선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토대로 이에 대한 함의점으로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패딩을 선보임으로써 학생들 간의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서론

최근 등골브레이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청소년들의 소비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등골브레이커란 학생이 본인의 신분 또는 재산에 맞지 않는 값비싼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부모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뜻한다. 등골 브레이커라는 용어의 시작은 겨울철 특정 브랜드의 패딩이 십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는 의복류를 넘어 화장품이나 전자기기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의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등골브레이커 현상은 청소년기 잘못된 소비 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이 왜 명품 패딩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등골브레이커라 명명되는 고등학생들의 명품 패딩 선호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어떠한 배경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게 되었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시기의 심리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울

바른 소비 태도를 갖추도록 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골브레이커의 개념 및 패딩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기사문에 나타난 등골브레이커의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등골브레이커의 경험이 있는 20대 52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이 왜 명품 패딩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서술응답조사를 수행한다. 넷째, 앞서 진행한 서술 응답을 수합 및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고등학생들의 명품 패딩 선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언론 보도 사례를 토대로 고찰해본 결과, 등골브레이커의 현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의 패딩은 가격과 색상에 의해 고등학교

내부의 계급이나 권력을 표상화하는 상징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제적으로 등골브레이커라고 명명되는 고가의 패딩이 고등학교 내의 계급이나 권력으로 작용하는지 인식을 살펴본 결과, 52명의 설문 참여자 대다수가 계급이나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교복이 불안정한 심리를 규제하는 원인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고가 패딩 선호 현상은 남들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기 위한 욕구가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행에 한참 민감할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남들의 이목을 집중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어, 집안의 재력을 나타내거나 소위 일진이라고 일컬어지는 무리를 표출하기 위한 상징체로 변질되어 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특정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고가의 패딩을 착용하게 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착용한 고가의 패딩을 착용함에 따라 그 안에서 서열을 구분하기 위하여 색상이 활용되어 계급 구분을 위한 표상체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로 자아정체감이나 소원감을 느낄 수 있다는 또래소외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표출됨을 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방이나 동조하고자하는 행위로 이어지며, 이 같은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없는 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 및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또는 동급 또는 저학년의 의복을 빼앗는 일탈행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고등학생들의 명품 패딩 선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토대로 이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해보면, 우리 사회는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해 표출하거나 생각해볼 실제적인 기회를 마련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즉, 고등학생의 위치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향을 띠고 있음으로 획일화된 일상 속에 단순히 고등학교의 신분적인 위치만 강요한다면 등골브레이커와 같은 문화는 사라지거나 변화하지 않는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시, 고등학생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복을 제작하는 업체들과 고등학교들 간의 조율을 통하여 겨울철 방한을 위한 패딩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준다면 등골 브레이커의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역설적으로 대학교에서 의복 자율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바를 제작해서 입는 현실을 가만해본다면, 친구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청소년시기에서 학생들이 무리에서 배제되지 않고 소속감을 더욱 증진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해결책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가치관 및 경제적 개념의 정립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병행한다면, 소비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그릇된 인식을 변화시켜줄 수 있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